차도구의 이해

박 홍 관 ▌동양차도구연구소장

차도구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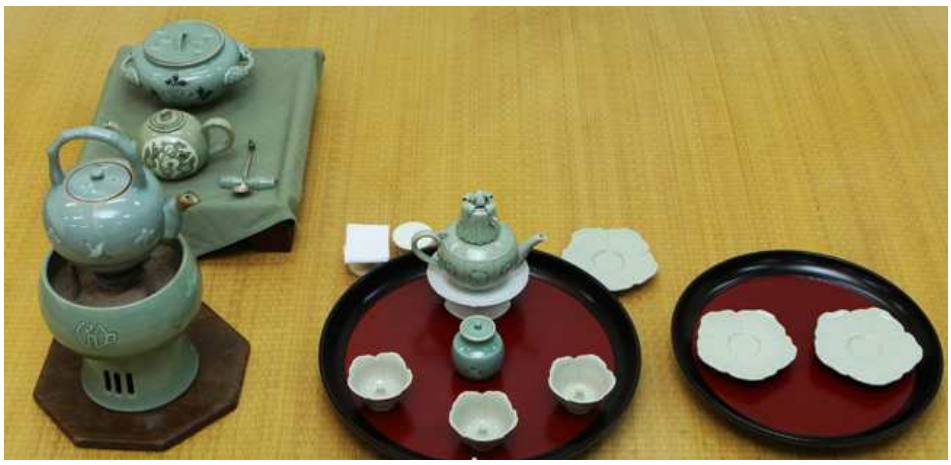
박 홍 관 동양차도구연구소장

차도구(茶道具)란 무엇인가

차도구는 직접적인 음다용을 포함한 찻자리에 등장하는 모든 기물을 말한다.

즉, 다완・다기・그림・족자・화로・풍로・화병 등 기물 하나하나에 감상의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사치스러운 것은 피하고 소박한 것을 선택하여 찻자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차도구를 만드는 소재는 소박하고 결과에는 격조가 있어야 한다".
"차도구는 국제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서는 격조(格調)있게 해야 한다."



여러사람의 작품을 혼용해서 세트로 구성한 것

Ⅰ 차도구 명칭

차도구의 명칭은 한국 · 중국 · 일본 등 나라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표기는 통일되어야 한다. 만일 차문화에 관한 저술이나 논문 등에서 차도구에 관한 명칭의 표기가 각기 상이할 경우 의식의 공유를 위한 절차가 먼저 필요할 것이며, 문화적 역량의 소모 또한 뒤따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와 차문화의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차도구의 한글 표기를 보면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차문화의 원산지인 중국 차도구 명칭이나, 또 근래에 와서 역수입되고 있는 일본 차문화의 차도구 명칭이 모두 칭명 방법에 있어서 원칙이 부재하다. 그런 가운데 즉흥적으로 표기된 것들이 다수 모여 서로 혼돈되어 불리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차문화 속에서 사용되고 또 표기되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 온 차도구는 당연하게 한자로 된 말이기에 한자의 우리식 발음대로 표기 및 발음이 되고, 일본 차도구의 명칭은 일본어의 발음대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즉, 일본 차도구와 중국 차도구를 부를 때 그 하나하나의 명칭에 있어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일성 없이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도구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다른 도구이면서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차문화 전반에 있어서 명칭 사용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져 왔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차문화 자체의 정체성 확립이 지연되거나 확립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명칭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차도구 명칭의 통일성

명칭 방법들은 많지만 역사적으로 시대를 거쳐 사회문화적 검증을 받은 다구들이 형태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실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새로운 명명법을 사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우리 차도구에 대한 명칭은 수없이 많은 부분이 외래어로 되어 있고 그나마 그러한 명칭 자체도 현재 중국이나 일본과 상이(相異)한 것이 많기 때문에 통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명이나, 대체명칭으로 구분되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지만 기존문화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상에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학술적

명칭부여라는 과제는 전통적으로 통용되었지만 우리의 것이 있었음에도 밝히고 사용하지 못한 대상, 혹은 한자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말로 표기하였을 때 더욱 그 의미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다 하겠다.

사람마다 차도구의 명칭을 부르고 있지만 모두 다 칭명(稱名)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차문화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차도구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도구 관련 명칭의 표기 유형을 살펴보면 대략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 1> 차도구 명칭 표기 유형

번호	차도구 명칭을 표기한 방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시문
1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	차시(茶匙), 다완(茶碗), 풍로(風爐), 량로(凉爐), 다병(茶甁)
2	한문과 한글을 혼합한 명칭	자루꼴다관, 공기구멍, 꽃병, 거름망
3	한문을 우리말로 고쳐서 표기한 명칭	찻솔(茶筅), 차냄비(茶銚), 차단지(茶壺), 솥(鼎), 표주박(瓢)
4	중국어를 일본어로 음사한 것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	차센(茶筅)
5	일본어를 한글로 음차한 명칭	후로(風爐), 차낀(茶巾), 차샤쿠(茶杓), 차이레(茶入), 후따오끼(개치), 규수(急須), 미스사시(水指), 가마(釜) 유헤이(湯餠), 오오이도(大井戶),아오이도(青井戶), 고이도(小井戶), 고비끼(粉引)
6	일본어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을 혼합한 명칭	이도다완(井戶茶碗), 소바다완(蕎麥茶碗), 도도야다완(斗斗屋茶碗), 운가꾸다완(雲鶴茶碗), 덴모쿠다완(天目茶碗), 긴까이다완(金海茶碗)
7	순 한글 명칭	운두, 고리꼴, 자루꼴, 매닯꼴, 붙힘꼴, 뚜껑받침, 찻솔

2 차도구 명칭 표기 통일안

각국의 차도구의 명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모두 통일되어 사용될 수는 없지만 노릇이지만, 한문으로 된 명칭은 한글로 음독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랜 기간 우리의 글과 말로 전래되어 온 것은 기본적인 표기법 옆에 순 우리말로 병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茶筅'의 경우 기본 명칭은 '차선'으로 하고 '찻솔'로 병용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차도구를 정리하고 연구함에 있어 정확한 명칭 정립과 학술 용어로서의 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개인적, 지역적인 고유 별칭, 혹은 신조어로서의 명명법은 별칭으로서의 구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신조어로서의 명칭을 명명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용례와 의미가 정확해야만 할 것이다.

Ⅱ 다기의 종류

차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잎차(전차)로 차를 우려마실 때는 다관(茶罐), 찻잔, 숙우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녹차를 마실 때 숙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녹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는 숙우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1 찻잔(茶盞)

차를 따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잔은 도자기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흰색은 차의 빛깔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서 좋고, 청자의 색깔도 찻빛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찻잔의 형태는 다양하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양과 빛깔의 찻잔을 사용하고 있다. 찻잔 가운데 찻종(茶鍾)이러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찰에서의 종을 거꾸로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인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찻잔은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것을 말한다.

찻잔의 색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색깔을 띄어도 차를 마시고 감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탕색을 구분하는 것은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나타난 구절을 확대해석한 것일 뿐이다.

2 다관(茶罐)

잎차를 넣고 탕관 또는 전기포트에서 끓인 물을 부어서 적당하게 우러나오면 우린 차를 찻잔에 따르기 위해 만들어진 주전자 모양의 그릇이다. 다관은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한다. 도자기, 철, 동, 은으로 만든 것이 있으나 철제품은 녹이 슬기 싶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은으로 만든 것은 맛있는 차를 내기 위한 차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홍차용 다구에 은제품이 많이 등장한다. 도자기로 된 것은 차를 우려내는데 있어서 가장 격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다관의 요건은 빛깔, 몸통, 뚜껑, 부리, 거름망, 손잡이 등이 균형감을 갖추고 기능성에서 원칙에

충실한 것일수록 좋은 다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손잡이를 잡았을 때 편안함을 주고 다관의 부리부분이 잘 만들어져서 차를 따를 때 찻물이 잘 멈추어지고 줄줄 흘러 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관의 뚜껑이 안정된 것이라야 다관을 기울였을 때, 뚜껑이 벗겨지지가 않고, 다관 내부에서의 거물은 가늘고 섬세하게 구멍이 고르게 만들어져서 차 찌꺼기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좋은 다관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다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3가지 주자형태의 차도구를 통칭하는 말이며,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호(茶壺)라는 도구로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세부적인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손잡이가 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량호(提梁壺)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손잡이 위치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고 고리꼴의 손잡이 달린 것은 '파(把)'자를 이용하여 파형호(把形壺)라고 한다. 제량호의 명칭은 재질에 따른 구분은 없으며 자사(紫砂) 또는 도자기로 만든 것으로 손잡이가 위에 있는 것은 모두 제량호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명칭은 다호(茶壺)와 다관(茶罐)의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관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차호를 다관(茶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용하는 주자형태의 차도구는 다호(茶壺)라 부르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의미변동을 가지며 교환사용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또한 차를 우려내는 주자형태에 다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차를 담아두는 통에 다호라는 말을 사용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중복 명칭들을 명확히 연구해 오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 중에 일부분이다.

<백자 다관(일본민예관 소장)>

<백자다관 1983년 상파형다관>

3 다관의 형태와 명칭

1) 다관(茶罐)의 형태별 분류

상파다관(上把茶罐) - 손잡이가 위에 있는 다관
횡파다관(橫把茶罐) - 손잡이가 옆으로 있는 다관
후파다관(後把茶罐) - 손잡이가 부리 뒷 쪽에 있는 다관

2) 손잡이 형태에 따른 분류

고리 꼴 다관 - 고리꼴 형태로 만들어진 손잡이.
자루 꼴 다관 - 자루 형태로 만들어진 손잡이.
손잡이 꼴 다관 - 매닮 꼴 다관, 붙힘 꼴 다관.

<이라보 횡파다관(이정환 作)>

<청화백자 후파다관, 유럽 홍차용>

Ⅲ 자사호란 무엇인가

1 의흥 자사호

차(茶)를 마시는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국적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일상에서 편하게 마시는 차와 격을 갖추어 마시는 자리 모두 차와 찻자리에 어울림이 있으면 사용하

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말차(가루차)가 아닌 잎차(산차)를 마시는 다법으로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차도(煎茶道)에서도 중국 자사호를 귀하게 여겨 근대까지 왕성하게 수입하고 전차도구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왔다.

자사호는 이러한 찻자리에 격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옛날부터 차도구를 구분하는데는 다양한 재질의 변화와 달리 일본에서는 '화물(和物)'(일본), '당물(唐物)'(중국), '고려물(高麗物)'(조선) 등으로 구분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차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리다기를 이용하는 편이 많지만, 중국차를 복건성이나 광동성에서 유행한 공부다법(工夫茶法)으로 마시고자 한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도구로 자사호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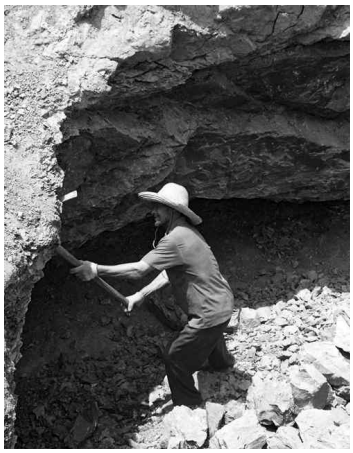
2 자사호의 고향

의흥(宜興)은 중국에서 도자기의 도시(도도 陶都)로 유명한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사도토(紫砂陶土)가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현지에서 생산되는 도토(陶土)로 만든 도자기는 국내외에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 자사 원료인 도자(陶瓷)의 주요 산지는 의흥시(宜興市)의 정촉진(丁蜀鎭)에 있다. 정촉진은 일명 정촉진(鼎蜀鎭), 정산(丁山)이라고도 하며 정산(丁山, 또는 鼎山), 촉산(蜀山), 탕도(湯渡)의 지역범위이다. 중국 내의 제일 중요한 도자기 생산기지이자 도자기 제품의 판매 집산지다.

3 자사 원광석의 풍화 과정

다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니료가 필요하는데, 니료를 가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사의 원광석을 노천에 두어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시키면 풍화작용이 일어나 자연스레 분쇄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니료 공장으로가서 분쇄하여 니료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광석의 종류에 따라서 원광석의 종류에 따라서 2차 풍화과정으로 들어가면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처마밑에 보관하거나 큰 광석을 납작한 형태로 다듬어 관리가 되는 니료 공장의 실내에 쌓아두고 자연스럽게 풍화과정으로 남겨두게 된다.

자사 재료 공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그 공장의 노하우로 분쇄하고 분류하면서 순니형 비닐에 밀봉해 6개월 이상 보관하면 점력이 좋아지고, 입자는 윤택해져 조형을 만들기에 용이해진다. 니료에 붉은 빛깔이 도는 것은 산화철 성분을 다수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기 있는 광택을 발산하는 성분(석영질)들은 다호를 제작했을 때 반짝이는 외관적 특징을 가지게 한다. 필자가 의흥에서 풍화 과정에 있는 광석을 한 장소에서 다른 광석의 풍화 과정을 비교해서 여러차례 확인해 본 결과 한 달만에 1차 풍화를 마치는 경우와 3개월, 6개월이 걸리는 광석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자사 광석 채굴>

<자사 광석 자연풍화>

4 자사기란 무엇인가?

자사기(紫砂器)는 자사 혹은 자사도기(紫砂陶器)를 말한다. 고대 문헌 중에는 여러 가지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예컨대 '명호(茗壺)', '의호(宜壺)', '사호(砂壺)', '와호(瓦壺)', '사호(沙壺)', '니호(泥壺)', '주춘(注春)', '차주(茶注)' 등등, 모두 일반적으로 의흥 자사기(紫砂器)를 가리키는 말들이다.

5 자사호란 무엇인가?

중국 내에서도 강소성(江蘇省) 의흥 정촉진 내에서만 나는 독특한 광석으로 흔히 오색토(五色土)라고 하는 이 광석을 풍화, 분쇄, 제련 과정을 저쳐서 만든 자사(紫砂)로

만든 다호(茶壺)로서 산차(散茶, 잎차)를 넣고 우려내는 도구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방법으로 차를 마시고 있으며, '자사(紫砂)'를 풀이하면 '자줏빛 모래'라는 뜻이다. 차도구의 일종으로 자사호가 등장하는 시기는 송대이지만, 유물로 남아 전해진 것은 명대 '시대빈(時大彬)'이라는 작가의 작품군부터이다. 의흥의 자사 다구는 명대 중기부터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 줄곧 시인묵객과 고관대작들이 애용하는 물건이 되었다.

자사는 재료 면에서 크게 구분하면 홍색을 띠는 주니(朱泥), 자줏빛을 띠는 자니(紫泥), 회백색 또는 회녹색을 띠는 단니(團泥)로 나누며, 좀 더 세분화하면, 황니(黃泥), 청니(靑泥), 녹니(綠泥), 본산녹니(本山綠泥), 백니(白泥), 흑니(黑泥) 등으로 사용된다. 백니류는 산출양이 극히 적어 호(壺) 형태로는 만들지 못하고 표면에 글이나 그림을 채색할 때 조금씩 쓴다. 각각의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을 병배하여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전차용 다기로 자사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역사적으로는 17세기, 일본의 은원 선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자니호가 오늘날까지 전차다기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자사호를 다병(茶甁)이라 한다.

6 자사호의 제작

중국 도자기는 경덕진에서 생산되는 자기류를 대표적인 상품으로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의 제작 방식 변화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불을 다루는 부분은 과거에는 나무를 이용했다면 현재는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는 현대적 설비가 대중화되어 있다. 자사호를 제작할 때도 불은 현대적인 설비 가마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제작하지만 규모 있는 공장에서는 자체 설비로 전기 또는 가스 가마 설비를 갖추고 있다.

도자 성형 공예의 전통 방법에는 수날법(手捏法), 납배법(拉坯法, 물레성형)이 있고 현대화된 생산은 주장성형법(注漿成型法)을 사용한다. 그런데 자사는 독자적인 기치를 내세운 니편양접성형법(泥片鑲接成型法)으로 만든다. 소위 '자사니편양접성형법'이란, 즉 원호(圓壺)류나 방호(方壺)류, 아니면 근문기(筋紋器)류 간에 성형할 때 먼저 재료를 두드려서 일정한 두께의 자니 조각을 만든 다음에 한 점 한 점씩 점차적으로 붙여가면서 한 개의 완전한 기물을 만드는 것이다. 전 공정은 거의 수공으로 조작하며, 이 때문

에 조형을 만들 때 받는 제약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상형적인 기물들은 모두 니편양접성형이라고 보면 된다.

자사호를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니편양접성형법인 타신통성형(打身筒成型, 전수공) 또는 박타법(拍打法)으로, 나무 탁자 위에 일정한 크기의 자사니를 올려 나무로 두들기면서 고르게 편 다음 제작하고자 하는 크기에 맞춰 규격화하여 정확하게 자르고 몸통의 구조에 맞게 끼우거나 붙이면서 완성해 가는 방법이다.

둘째, 수날법(手捏法)이라고 하여 반수제 또는 석고틀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호의 몸통을 비롯하여 뚜껑이나 손잡이 등 부분별로 석고 모형을 만든 뒤 손으로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반수공법이라고도 한다. 의흥에서는 대표적으로 왕금천 작가가 이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인 도자기 제작 기법과 같이 물레를 돌려서 만드는 것으로 수랍배(水拉坯), 납배법이라고 한다.

넷째, 주장성형법(注漿成型法)이라고 하여 다호의 각 부분별로 석고 틀을 제작하여 틀 속에 흙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석고 틀에 흙물을 주입한 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흙물을 빼내고 건조시킨 후에 분리하는 방식이다. 대량 생산시 많이 사용한다.

<박타법>

<수날법>

<납배법>

7 자사(紫砂)의 종류

자사 광석은 단단하게 보이지만 비바람을 맞으면서 암층별도 차이는 있지만 쉽게 부서지거나 모래알갱이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든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병배되어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

자사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순수 재료에 근거를 두고 하지만 실제 의흥에서 자사가 거래되거나 인공적인 색상을 작가만의 오랜 축적된 경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천연적인것만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본산녹니, 흑니 계열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법이 전수되면서 산화철을 조금씩 여러 번 니료를 숙성하면서 고박한 맛 까지 낼 수 있는 점, 필자는 작가의 고백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술에 감탄한 적도 있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색상을 내는 “자니, 주니, 본산녹니”로 구분한다.

1) 자니(紫泥)

자사가운데 점력이 좋으며 자사의 대표적인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 자니 광석은 지하 광층 깊은 암층에 매장되어 있다. 순수한 한 가지 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룡산 암층 수백미터 밑에서 나온다. 저조층은 자색에 은빛 광택이 나며, 현재는 황룡산에서는 채굴이 금지 되어 예전에 채굴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주니는 점력이 약한 니료와 병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2) 주니(朱泥)

주니 광석의 원색은 노란색 또는 황색으로 석황주니(石黃朱泥)라고도 한다. 주니는 소성 때의 수축률이 다른 재질보다 높아서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기 까지는 어려운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같은 주니라도 밀도가 높은 것과 모래같이 작은 사질(砂質)이 섞여있는 것이 있다. 양호를 했을 때의 결과물은 소장가의 기호에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의 사질이 있는 것이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는 편이다.

3) 녹니(綠泥), 본산녹니(本山綠泥)

단니의 일종으로 광석은 담녹색으로 황룡산 자니 광석층 사이사이에 부분적으로 한 겹씩 끼어 있는 재질이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것을 일일이 뜯어내는 일을 한다. 원석의 가장 큰 특징은 점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본산녹니만으로 조형하여 소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점력이 좋은 자니를 조금 섞어서 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소성이 잘 된 것은 옥(玉)과 같다고 해서 자옥금사(紫玉金砂)라 한다.

8 자사호의 소성(燒成)

한국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사호를 소성할 때 장작가마로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때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설비가마의 위상이 낮다 보니까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장작가마로 작업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의흥에도 오래된 장작가마가 있다. 하지만 이 가마에서는 자사호를 소성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가마의 보존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불을 지피는데 이때는 옹기 단지나 화분 정도를 굽고 있다. 간혹 의흥에서 장작가마로 소성한 자사호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는 이벤트로 제작한 것이다. 불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아 요변이 생긴 것을 특히 더 좋아하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다.

중국 의흥에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성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보기 드문편이다. 규모있는 공장에서는 대부분 가스가마로 작업을 한다. 필자가 2005년 처음으로 개인 작업실에 설치하는 전기로를 보았다. 대부분은 소성공장에 의뢰하여 완성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다. 전기로가 있는 공장은 긴터널 같은 구조로 그 공장에 소성을 의뢰할 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까지 직접 열을 가하는 로(爐) 구간을 통과하고 열을 식히는 구간이 있다. 이런 방식의 소성공장은 대부분 한 번으로 거친다면 개인적으로 작품에 따라서 두 번 소성할 것을 주문하면 된다. 비용은 추가 요금이 있다.

9 자사호 장식

1) 교니 장식과 채유 장식

자사호에 장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사호를 제작할 당시의 사회 풍토와 작가의 개인적인 정서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니(絞泥)는 또한 교태(絞胎)라고도 하는데, 칠기의 서비(犀毗) 기법에서 차용한 말이다. 두 가지 이상 다른 색상의 니료를 서로 주물러 합치고 밀어내어 만든 것으로, 자연화문(自然花紋)을 형성하는데 마치 목리문(木理紋), 수파문(水波紋), 화석문(花石紋), 호접문(蝴蝶紋), 그리고 유운문(流雲紋)처럼 색채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교니 장식으로 만든 것은 서로 다른 색상의 니료이기에 소성할 때 수축률이 달라서 잘못하면 가장자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2) 조사, 포사, 색니 장식

자사호의 표면에 사질(砂質)이 별들처럼 은근히 나타나는데, 옛날부터 호 표면의 기리(肌理)를 개선하여 애호가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에 늘 상 보이는 것으로 조사(調砂), 포사(鋪砂) 및 색니(色泥)의 세 가지 공예 방법이 있다. 조사 장식은 작가마다, 니료에 따라 제작 기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주니 조사법에서는 노랑색의 주니 원사를 분쇄하여 조금 익힌 다음 가공하여 주니 니료와 병배해서 부우면 조사한 원사의 노랑색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다. 또는 자니 속에 다 거칠거나 고운 모래알을 넣으면 자니의 질이 다르고, 소성시 수축률도 달라서 소성이 완성된 뒤에는 니피니(梨皮泥)의 효과가 나타난다.

Ⅳ 다완(茶碗)

- 다완(茶碗)은 가루차(말차 抹茶)를 마시는데 사용하는 다기.

1 다완(茶碗)의 정의

다완은 말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이므로 그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양손으로 들어 잡았을 때, 적당한 안정감과 중량감이 있어야 하고, 만져진 느낌에서 따사로움이 전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입술에 닿았을 때의 깊은 느낌, 차솔을 사용하면서의 편리성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다미(茶味)를 맛 볼 수 있어야 한다.

2 다완의 기본 조건

차와 관련한 기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품성을 요구하는 다완은 형태(形), 질감(觸), 경치(景)를 감상할 수 있는 3가지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말차를 타면 차가 잘 타지는 것이 좋고, 다완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차심이 품위가 있고 고귀하게 들어가야 한다.

1) 형태

- 물레질에서 힘찬 곡선이 나오면서 비례가 맞아야 한다.
- 크기에 비례한 적당한 중량감을 가져야 한다.
- 다완의 형태에 어울리는 굽이 되어야 한다.
- 다완 안쪽의 차 고임자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2) 질감

- 좋은 흙을 사용하여 제작된 다완은 적당한 열전도로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는 따뜻한 열전도가 되어야 한다.
- 다완의 표면이 너무 빤짝거리지 않고, 손에 쥐면 감촉이 좋아야 한다. 사용한 유약의 좋고 나쁨의 가름은 유약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좋은 유약∩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러우면서 천연적인 색감과 질감을 얻을 수 있다.

3) 경치

- 형태에 따라서 계절과 잘 어울리는 색감이나 요변은 감상의 가치를 더 높혀 준다. 요변이 있는 경우는 요란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점잖은 것이 좋다.
- 흙과 유약이 잘 조화되어 천박하지 않고 계절에 맞게 어울리는 멋이 있어야 한다.